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¹,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자원봉사 동아리²

이건세¹ · 새날을 여는 우리²

= Abstract =

Konkuk Medical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n Volunteer Activities

Kun-Sei Lee¹, New Horizon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¹
Volunteer Circle,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²*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edical students' consciousness on volunteer activities. What kinds of volunteer activities they had done, what kinds of volunteer activities they want to participate in, how they think about making volunteer program as school regular curriculum, and how they feel about volunteer activity.

Materials and Methods: Study subjects are first, second grade premedical students and first, second grade medical student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t October, 1999. Finally, 119 questionnaire is collected, which is 74% of all students except 3rd, 4th grade students.

Results: Study subjects had participated in several volunteer activities. 44.5% of them had participated in some volunteer activities since they had become to college student, 30.8% of them participated in summer rural volunteer activity, and 39.3% of them had donated their blood. Many students (79.66%) agreed that volunteer activities are required as college students, and if they might have som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they would like to (54.17%). However, Only 22.50% of subjects agreed to make volunteer activities as regular medical curriculum. Even though the percentage showed low, they intended to apply to the curriculum (40.83%). Most of them agreed there were in need of participating in hospital volunteer activities (82.50%) and community volunteer activities (78.33%). Among hospital volunteer activities, they wanted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at supporting department (26.05%), emergency room (22.69%), out-patient department (21.01%), and in-patient department (21.01%). They wanted to have volunteer activities at institution (66.39%) rather than to individual person (33.61%). They wanted

* 교신저자: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o participate in friendly supports (40.34%), out-going supports (28.57%), house work supports (22.69%). Factor analysis showed that recognition of volunteer activities had 5 latent dimensions: 'self-achievement' (16.15%), 'social exchange and the pursue of experience (13.93%)', 'social responsibility of college (13.03%)', 'leisure of worth and expert activity (12.40%)', 'passive and meeting other's expectation (9.03%)'

Conclusion: From above results, We found premedical and medical students had participated in various volunteer activities and they had much mor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Before developing and designing volunteer programmes, One should consider they have various aspects on the programmes. The programmes should not be emphasized on altruistic aspect and social responsibility extremely, but rather it should be considered how the programmes could give the opportunities for the social exchange, social relationship, sense of solidarity, and usefulness of acquired medical knowledge and skill.

Key Words: Volunteer activities, Volunteer program development

서 론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를 사명으로 가지고 있다. 대학의 사회봉사는 교육 및 연구 기능에 의한 결과를 직접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활동이며 변천하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문 인력의 육성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의미한다. 대학은 민주국가의 리더십을 배양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장차 사회지도층으로 활동하게 될 젊은 인재들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솔선 수범하는 인간미와 리더십을 갖추도록 교육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³

대학입시전형시 봉사경력을 반영토록 하면서 중, 고등학교에서 사회봉사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사회봉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96년 2학기 현재 28개 대학이 사회봉사활동을 정규 교양과목으로 혹은 전공과목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의학교육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성교육과 사회봉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의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것으로 전문가가 목표로 삼는 것은 타인에게 가치 있는 봉사를 행하는 것이다. 봉사를 함으로써 전문가가 가장 전문가다워질 수 있다.¹⁵ 더욱이 의학교육

에 있어서 인성교육은 의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과학기술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인간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강조하고 있다.⁷

그런데 의사로서 사회봉사, 인성교육은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고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과 사회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의학교육은 주로 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에 치중해 왔다. 학습량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나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훌륭한 의사, 유능한 의사, 바람직한 의사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임상술기만 뛰어나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21세기 의료현장에서 일할 의사에게는 윤리의식과 인성을 더 많이 요구받게 될 것이므로 인성교육, 사회봉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¹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학교육에서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방법, 실시 및 그 평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기초의학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봉사를 실시한 후 실습학생에 대한 태도, 성실도, 실습성과의 달성도 등을 평가한 연구이외에 의과대학생의 자원봉사, 사회봉사에 관한 다른 연구는 거의 없

표 1. 과별, 성별 조사대상

		남성		여성		합계	
		명	%	명	%	명	%
의예	1학년	13	10.92	9	7.56	22	18.46
	2학년	17	14.29	10	8.40	27	22.69
의학	1학년	25	21.01	13	10.92	38	31.93
	2학년	25	21.01	7	5.88	32	26.89
합계		80	67.23	39	32.77	119	100.00

는 상황이다.⁴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교육목표로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자체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자원봉사 내용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습 중심, 참여적 교육이라기보다는 강의 중심의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의 요구, 필요성,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수업량이 많은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고려하면 보다 효율적,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계획을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이다. 즉,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현황과 자원봉사의 필요성,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사전 조사하여 향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의과대학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는 1999년 10월에 건국대의 의예과 1, 2학년, 의학과 1,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인적사항(성, 종교, 고등학교 졸업지역), 학적사항 및 학내활동(학과, 학년, 동아리활동, 학교이념에 대한 인식), 과거봉사활동 경험 여부(과거의 사회봉사활동 경험, 농촌봉사활동 참가 여부, 헌혈경험, 향후 봉사활동참가 의향), 대학의 봉사활동제도화에 대한 인식, 병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의 봉사활동제도화에 대한 문항은 대학생 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점제 도입에 대한 인식, 수강대상학점제 도입의 경우 교과목 선택방법, 학점제 도입의 경우 수강 시기, 수강 시간, 수강 의지로 구성하였다. 병원 및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참가하기 원하는 병원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 참가하기 원하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조사하였다.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존의 문헌, 조사 등을 기초로 23개 문항을 개발하여 매우 동의(+3), 중립(0), 매우 부정(-3)으로 구분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대학생 자원봉사, 병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3개 척도로 재범주화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AS를 활용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의예과 1학년 22명, 18.46%, 의예과 2학년 27명, 22.69%, 의학과 1학년 38명, 31.93%, 의학과 2학년 32명, 26.89%이었다.

2. 과거봉사활동 경험

과거의 봉사활동 경험은 대학에 입학한 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참가 경험, 여름 농촌활동 참가 경험, 헌혈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대학 입학 후 사회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3명, 44.5%,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66명, 55.5%이었다. 여름 농촌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명, 30.8%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3명, 69.2%이었다. 헌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4명, 61.7%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6명, 38.3%이었다.

1) 봉사활동 경험

대학 입학 후 봉사활동 경험의 학과별 분포는 의예과 학생 가운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0명, 40.82%, 없다는 29명, 59.18%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의 경우 있다는 33명, 47.14%, 없다는 37명, 52.86%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대학 입학 후 봉사활동 경험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6명, 45.00%, 없다는 44명, 55.00%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있다는 17명, 43.59%, 없다는 22명, 56.41%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대학 입학 후 봉사활동 경험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서울지역 학생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명, 34.85%, 없다는 43명, 65.15%이었으며, 경기 및 기타 지역 학생의 경우 있다는 30명, 56.60%, 없다는 23명, 43.40%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 입학 후 봉사활동 경험의 동아리 활동별 분포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명, 43.59%, 없다는 44명, 56.41%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있다는

19명, 46.34%, 없다는 22명, 53.66%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대학 입학 후 봉사활동 경험의 종교별 분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명, 45.95%, 없다는 40명, 54.05%이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는 19명, 42.22%, 없다는 26명, 57.78%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2) 여름 농촌활동 경험

여름 농촌활동 경험의 학과별 분포는 의예과 학생 가운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명, 22.45%, 없다는 38명, 77.55%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의 경우 있다는 26명, 36.62%, 없다는 45명, 63.38%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여름 농촌활동 경험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6명, 32.50%, 없다는 54명, 67.50%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있다는 11명, 27.50%, 없다는 29명, 72.50%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여름 농촌활동 경험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서울지역 학생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명, 34.44%, 없다는 44명, 65.67%이었으며, 경기 및 기타 지역 학생의 경우 있다는 14명, 26.42%, 없다는 39명, 73.58%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여름 농촌활동 경험의 동아리 활동별 분포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4명, 30.77%, 없다는 54명, 69.23%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있다는 13명, 30.95%, 없다는 29명, 69.05%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여름 농촌활동 경험의 종교별 분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서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9명, 42.22%, 없다는 26명, 57.78%이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 있다는 18명, 24.00%, 없다는 57명, 76.00%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여름 농촌 활동 경험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 학적, 인적 특성별 자원봉사활동 경험

		대학입학 후 봉사활동				어름농촌활동				헌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소계		53	44.54	66	55.46	37	30.83	83	69.17	74	61.67	46	38.33
학과	의예	20	40.82	29	59.18	11	22.45	38	77.55	24	48.98	25	51.02
	의학	33	47.14	37	52.86	26	36.62	45	63.38	50	70.42	21	29.58
		$\chi^2 = 0.467, p>0.05$				$\chi^2 = 2.730, p>0.05$				$\chi^2 = 5.639, p<0.05$			
성	남성	36	45.00	44	55.00	26	32.50	54	67.50	60	75.00	20	25.00
	여성	17	43.59	22	56.41	11	27.50	29	72.50	14	35.00	26	65.00
		$\chi^2 = 0.021, p>0.05$				$\chi^2 = 0.313, p>0.05$				$\chi^2 = 18.049, p<0.05$			
출신지역	서울	23	34.85	43	65.15	23	34.44	44	65.67	37	55.22	30	44.78
	기타	30	56.60	23	43.40	14	26.42	39	73.58	37	69.81	16	30.19
		$\chi^2 = 5.632, p<0.05$				$\chi^2 = 0.869, p>0.05$				$\chi^2 = 2.664, p>0.05$			
동아리활동	예	34	43.59	44	56.41	24	30.77	54	69.23	25	59.52	17	40.48
	아니오	19	46.34	22	53.66	13	30.95	29	69.05	49	62.82	29	31.18
		$\chi^2 = 0.082, p>0.05$				$\chi^2 = 0.000, p>0.05$				$\chi^2 = 0.126, p>0.05$			
종교	유	34	45.95	40	54.05	19	42.22	26	57.78	44	58.67	31	41.33
	무	19	42.22	26	57.78	18	24.00	57	76.00	30	66.67	15	33.33
		$\chi^2 = 0.157, p>0.05$				$\chi^2 = 4.379, p<0.05$				$\chi^2 = 0.761, p>0.05$			

3) 헌혈 경험

헌혈 경험의 학과별 분포는 의예과 학생 가운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4명, 48.98%, 없다는 25명, 51.02%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의 경우 있다는 50명, 70.42%, 없다는 21명, 29.58%로 의예과에 비하여 의학과 학생의 헌혈 경험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헌혈 경험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0명, 75.00%, 없다는 20명, 25.00%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있다는 14명, 35.00%, 없다는 26명, 65.00%로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헌혈 경험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헌혈 경험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서울지역 학생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명, 55.22%, 없다는 30명, 44.78%이었으며, 경기 및 기타 지역 학생의 경우 있다는 37명, 69.81%, 없다는 16명, 30.19%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헌혈 경험의 동아리 활동별 분포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명, 59.52%, 없다는 17명, 40.48%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있다는 49명, 62.82%, 없다는 29명, 31.18%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헌혈 경험의 종교별 분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서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4명, 58.67%, 없다는 31명, 41.33%이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표 3. 자원봉사 제도화에 대한 인식

		학 과				합 계	
		의 예		의 학		명	%
		명	%	명	%		
자원봉사 참여의도	참여할 것	29	59.18	36	50.70	65	54.17
	중립	16	32.65	26	32.62	42	35.00
	참여않을 것	4	8.16	9	12.68	13	10.83
필요성	필요	41	85.42	53	75.71	94	79.66
	중립	7	14.58	14	20.00	21	17.80
	불필요	0	0.00	3	4.29	3	2.54
학점제 도입	찬성	10	20.41	17	23.94	27	22.50
	중립	15	30.61	21	29.58	36	30.00
	반대	24	48.98	33	46.48	57	47.50
수강대상	전교생	15	33.33	31	44.93	46	40.35
	특정학년	30	66.67	38	55.07	68	59.65
과목선택	필수과목	10	21.74	29	40.85	39	33.33
	선택과목	36	78.26	42	59.15	78	66.67
교과목 기간	학기 중	31	67.39	34	49.28	65	56.52
	방학 중	15	32.61	35	50.72	50	43.48
자원봉사 시간	2시간 이내 /주	35	72.92	32	46.38	67	57.26
	2~4시간 /주	13	27.08	37	53.62	50	42.74
수강의도	예	15	30.61	34	47.89	49	40.83
	아니오	34	69.39	37	52.11	71	59.17

학생의 경우 있다는 30명, 66.67%, 없다는 15명, 33.33%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3. 봉사활동제도화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의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65명, 54.17%, 중립은 42명, 35.00%,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13명, 10.83%이었다. 의예과의 경우 참여할 것이라는 29명, 59.18%, 중립은 16명, 32.65%,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4명, 8.16%이었으며 의학과의 경우 참여할 것이

다는 36명, 50.70%, 중립은 26명, 32.62%,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9명, 12.58%이었다. 의예과 학생의 참여의도가 의학과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94명, 79.66%, 중립은 21명, 17.80%, 필요하지 않다는 3명, 2.54%이었다. 의예과의 경우 필요하다는 41명, 81.42%, 중립은 7명, 14.58%, 필요하지 않다는 0명, 0.0%이었으며 의학과 의 경우 필요하다는 53명, 75.71%, 중립은 14명, 20.00%, 필요하지 않다는 3명, 4.29%이었다.

표 4. 병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학 과				합 계	
		의 예		의 학			
		명	%	명	%	명	%
병원봉사활동 필요성	필요	42	85.71	57	80.28	99	82.50
	중립	4	8.16	9	12.68	13	10.83
	불필요	3	6.12	5	7.04	8	6.67
병원봉사참여의도	병실	14	28.57	11	15.71	25	21.01
	외래	12	24.69	13	18.57	25	21.01
	응급실	7	14.29	20	28.57	27	22.69
	행정	1	2.04	3	4.29	4	3.36
	시설, 장비	3	6.12	4	5.71	7	5.88
	지원부서	12	24.49	19	27.14	31	26.05
지역사회봉사활동 필요성	필요	37	75.51	57	80.28	94	78.33
	중립	9	18.37	11	15.49	20	16.67
	불필요	3	6.12	3	4.23	6	5.00
지역사회 대상	개인	15	30.61	25	35.71	40	33.61
	시설	34	69.39	45	64.29	79	66.39
대상 집단	노인	7	14.29	20	28.17	27	22.50
	아동	16	32.65	18	25.35	34	28.33
	장애아동	17	34.69	16	22.54	33	27.50
	장애인	9	18.37	17	23.94	26	21.67
지역사회봉사참여의도	우애활동	21	42.86	27	38.57	48	40.34
	가사원조	12	24.49	15	21.43	27	22.69
	신변보조	3	6.12	7	10.00	10	8.40
	외출보조	13	26.53	21	30.00	34	28.57

자원봉사를 학점제로 도입하여 정규과정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찬성은 27명, 22.50%, 중립은 36명, 30.00%, 반대는 57명, 47.50%이었다. 의예과의 경우 찬성은 10명, 20.41%, 중립은 15명, 30.61%, 반대는 24명, 48.98%이었으며 의학과 의 경우 찬성 17명, 23.94%, 중립은 21명, 29.58%, 반대

는 33명, 46.48%이었다.

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수강대상을 전교생과 특정학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전교생으로 실시하는 것을 응답한 학생이 46명, 40.35%, 특정학년으로 응답한 학생은 68명, 59.65%이었다. 의예과의 경우 전교생에 응답한 학생은 15명, 33.33%, 특정학년

은 30명, 66.67%이었으며 의학과 의 경우 전교생은 31명, 44.93%, 특정학년은 38명, 50.07%이었다.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한 학생은 39명, 33.33%이었으며, 선택과목으로 할 것에 응답한 학생은 78명, 66.67%이었다. 의예과 학생의 경우 필수과목으로 응답한 학생은 10명, 21.74%, 선택과목은 36명, 78.26%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의 경우 필수과목은 29명, 40.85%, 선택과목은 42명, 59.15%으로 응답하였다.

교과목을 시행하는 시기에 대하여 학기 중으로 응답한 학생은 65명, 56.52%이었으며, 방학중으로 응답한 학생은 50명, 43.48%이었다. 의예과 학생의 경우 학기 중으로 응답한 학생은 31명, 67.39%, 방학중으로 응답한 학생은 15명, 32.61%, 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의 경우 학기 중으로 응답한 학생은 34명, 49.28%, 방학중으로 응답한 학생은 35명, 50.72%이었다.

자원봉사 시간을 1주에 2시간 이내에 응답한 학생은 67명, 57.26%이었으며 2~4시간에 응답한 학생은 50명, 42.74%이었다. 의예과 학생의 경우 1주에 2시간 이내에 응답한 학생은 35명, 72.92%이었으며 2~4시간에 응답한 학생은 13명, 27.08%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의 경우 1주에 2시간 이내는 32명, 46.38%, 2~4시간은 37명, 53.62%이었다.

자원봉사과목이 개설될 경우 수강의도는 할 것이다가 49명, 40.83%, 하지 않을 것이다가 71명, 59.17%이었다. 의예과 학생의 경우 수강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5명, 30.64%이었으며 하지 않을 것이라는 34명, 69.39%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의 경우 할 것이라는 34명, 47.89%, 하지않을 것이라는 37명, 52.11%이었다.

4. 병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병원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은 필요성, 참여하기 원하는 활동을 조사하였다. 병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99명, 82.50%, 중립은 13명, 10.83%, 필요하지 않다는 8명, 6.67%이었다. 의예과 학생의 경우 필요하다는 42명, 85.71%, 중립은 4명, 8.16%, 필요하지 않다는 3명, 6.12%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은 필요하다는 57명, 80.28%, 중립은 9명, 12.68%, 필요하지 않다는 5명, 7.04%이었다.

병원자원봉사를 할 경우 참여하기 원하는 것은 병실의 경우 25명, 21.01%, 외래 25명, 21.01%, 응급실 27명, 22.69%, 행정 4명, 3.36%, 시설 및 장비는 7명, 5.88%, 지원부서는 31명, 26.05%이었다. 의예과의 경우 병실은 14명, 28.57%, 외래 12명, 24.69%, 응급실 7명, 14.29%, 행정 1명, 2.04%, 시설 및 장비는 3명, 6.12%, 지원부서는 12명, 24.49%이었으며 의학과 의 경우 병실은 11명, 15.71%, 외래 13명, 18.57%, 응급실 20명, 28.57%, 행정 3명, 4.29%, 시설 및 장비는 4명, 5.71%, 지원부서는 19명, 27.14%이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94명, 78.33%, 중립은 20명, 16.67%, 필요하지 않다는 6명, 5.00%이었다. 의예과 학생의 경우 필요하다는 37명, 75.51%, 중립은 9명, 18.37%, 필요하지 않다는 3명, 6.12%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은 필요하다는 57명, 80.28%, 중립은 11명, 15.49%, 필요하지 않다는 3명, 4.23%이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응답한 학생은 40명, 33.61%,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응답한 학생은 79명, 66.39%이었다. 의예과 학생에서는 개인 대상이 15명, 30.61%, 시설 대상이 34명, 69.39%, 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에서는 개인 대상이 25명, 35.71%, 시설 대상이 45명, 64.29%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응답에서 노인은 27명, 22.50%, 아동은 34명, 28.33%, 장애아동 33명, 27.50%, 장애인은 26명, 21.67%이었다. 의예과 학생의 경우 노인은 7명, 14.29%, 아동은 16명, 32.65%, 장애아동 17명, 34.69%, 장애인은 9명, 18.37%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의 경우 노인은 20명, 28.17%, 아동은 18명, 25.35%, 장애아동 16명, 22.54%, 장애인은 17명, 23.94%이었다.

참여하기 원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에서 우애활동은 48명, 40.34%, 가사원조는 27명,

표 8. 자원봉사활동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성분				
	1	2	3	4	5
	$\alpha=.86$	$\alpha=.83$	$\alpha=.81$	$\alpha=.78$	$\alpha=.76$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고맙게 여길 것이다	.714	.312	.059	.081	.139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597	.111	.210	.377	.047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한다	.579	.114	.305	.399	-.079
인격수양에 도움이 된다	.558	.245	.359	.315	-.235
자아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다	.761	-.040	.134	.289	.144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 효과적이다	.615	.213	.555	.033	-.093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한다	-.021	.723	.233	.006	.111
주위 친구들과 공동체 소속감을 얻게한다	.023	.408	.384	.360	.332
여러 사람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게한다	.441	.460	.127	.398	-.225
종교적인 신념을 다른 사람을 돕게 동기를 준다	.258	.465	-.108	.189	.239
자기발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얻기위해 필요하다	.404	.611	.330	.042	-.079
자원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것이다	.324	.595	.101	.174	.348
미래의 직업이나 경력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다	.335	.525	.044	.406	-.004
나의 학문적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의 기회이다	.023	.681	.307	.367	.124
관념적인 교육에 대항하여 경험적인 교육이 보장된다	.021	.204	.752	.325	-.094
민주주의 교육 실습의 장이다	.240	.099	.741	.267	.154
대학의 사회적 사명이다	.354	.111	.679	.033	.289
주체적인 인간형성에 불가결하다	.487	.300	.554	-.120	.162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한다	.159	.065	.202	.754	.056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 보기 위해 한다	.320	.360	.039	.605	.192
친구, 동료 등 대인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230	.193	.134	.749	.125
주위 사람의 권유에 의해 한다	-.002	.028	.092	.134	.839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한다	.048	.259	.081	.025	.831
회전제공합 적재값 %분산	16.15	13.93	13.03	12.40	9.03
회전제공합 적재값 %누적	16.15	30.09	43.12	55.52	64.56

22.69%, 신변보조는 10명, 8.40%, 외출보조는 34명, 28.57%이었다. 의예과학생의 경우 우애활동은 21명, 42.86%, 가사원조는 12명, 24.49%, 신변보조는 3명,

6.12%, 외출보조는 13명, 26.53%이었으며 의학과 학생의 경우 우애활동은 27명, 38.57%, 가사원조는 15명, 21.43%, 신변보조는 7명, 10.00%, 외출보조는

21명, 30.00%이었다.

5. 자원봉사활동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학생들의 봉사활동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3개 문항의 KMO는 0.862로 KMO가 0.7 이상으로 요인분석을 할 만하며, Bartlett의 검정의 유의 수준은 0.001 이하로 요인분석을 실시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으로 실시하였으며 베리맥스 회전하였다. 23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0.4 이상으로 각 요인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5개 요인들의 총변량은 64.56%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총공통변량의 16.15%를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에는 6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문항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고맙게 여길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한다’, ‘인격수양에 도움이 된다’, ‘자아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 효과적이다’로 첫 번째 요인은 ‘자아실현형’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총공통변량의 13.93%를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에는 8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문항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한다’, ‘주위 친구들과 공동체 소속감을 얻게한다’, ‘여러 사람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게한다’, ‘종교적인 신념을 다른 사람을 돕게 동기를 준다’, ‘자기발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자원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것이다’, ‘미래의 직업이나 경력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다’, ‘나의 학문적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의 기회이다’로 두 번째 요인은 ‘경험 확대형’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총공통변량의 13.03%를 설명하는 세 번째 요인에는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문항은 자원봉사는 ‘관념적인 교육에 대하여 경험적인 교육이 보장된다’, ‘민주주의 교육 실습의 장이다’, ‘대학의 사회적 사명이다’, ‘주체적인 인간형성에 불가결하다’로 세 번째 요인은 ‘사회사명형’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총공통변량의 12.40%를 설명하는 네번째 요인에

는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문항은 자원봉사는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한다’,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 보기 위해 한다’, ‘친구, 동료 등 대인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로 네번째 요인은 ‘여가 및 전공활용형’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총공통변량의 9.03%를 설명하는 다섯 번째 요인에는 2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문항은 자원봉사는 ‘주위 사람의 권유에 의해 한다’,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한다’로 세 번째 요인은 ‘타인기대형’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개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를 계산한 결과 각각 .86(자아실현형), .83(경험확대형), .81(사회사명형), .78(여가 및 전공활용형), .76(타인기대형)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고 찰

1. 자원봉사 활동 경험

조사대상의 44.54%는 대학입학 후 자원봉사 경험을 하였으며, 여름농촌활동은 30.83%, 헌혈은 61.67%가 하였다. 1999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에서 우리나라 20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이 14.02%로 보고되고 있지만⁸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예, 의학과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여름농촌활동, 헌혈의 경우 의학과 학생들이 의예과 학생보다 봉사활동경험을 많이 하였으며 특히 헌혈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과별 차이는 학년별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별적인, 집단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 자원봉사활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입학 후 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헌혈을 모두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헌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남성(5.9%)이 여성보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¹² 최근 조사된 연구에서 자원봉사자 참여자 중 성별 비율을 보면, 여자가 54.9%, 남자는 45.1%

를 차지하고 있어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⁸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 지역과 경기 및 기타 지역으로 출신지역을 구분한 경우 대학 입학 후 자원봉사활동은 기타 지역의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 및 기타 지역 학생들이 주말 및 방학 기간 동안 귀가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봉사활동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대학 입학 후 자원봉사 경험, 여름농촌활동 경험, 헌혈 경험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자원봉사 경험의 차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가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촌 봉사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종교단체의 자체적인 여름 수련회, 농촌봉사활동의 참가와 종교적인 동기에 의한 학생 농촌활동 참가로 이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자원봉사 제도화에 대한 인식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경우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4.17%이고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79.66%임에도 불구하고 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학생은 22.50%, 필수과목 도입에는 33.33%가 찬성, 자원봉사과목이 개설될 경우 수강할 학생은 40.83%로 자원봉사를 제도화하고 강제성을 갖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원봉사, 인성교육, 사회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명칭으로 1995년, 1996년에 자원봉사 교과목을 개설한 가톨릭대, 건양대, 성균관대, 인제대, 한양대, 홍익대 등 22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은 교양필수과목으로 15개 대학은 교양선택과목으로 실

시하였다. 의과대학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예과 1, 2를 수강대상으로 학점은 없이 52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⁹

자원봉사 학점제와 강제적 시행은 자원봉사활동이 형식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대부분 과목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당국의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시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병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의과대학 학생들의 병원 및 지역사회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며, 특히 병원의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이 지역사회자원봉사의 필요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자신의 학업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자원봉사 경험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입원환자를 위한 활동(대화상대, 병원생활에서의 각종보조, 심부름 등), ② 외래환자를 위한 활동(접수/안내/대필/지참말 말기는 일 돕기, 동행아동 보호 등), ③ 병원(보건소) 내 업무지원 및 서비스(위생재료 만들기, 식사에 관한 보조, 병원 내 환자이송, 상담 등)로 구분할 수 있다.¹³ 또한 병원의 봉사활동을 ① 정보제공, ② 환자의 보호(care) 및 심리상담, ③ 업무보조, ④ 알선, ⑤ 대변, ⑥ 후원, ⑦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⁸

본 연구에서는 병원 자원봉사를 ① 병실(식사 및 운동보조, 환자부축, 병문안, 말벗, 책읽어주기 등), ② 외래(안내센터 봉사, 불편사항처리 및 질서유지, 거동불편 환자 부축, 안내 등), ③ 응급실(응급실 질서유지, 환자보조, 간호업무 보조, 전화안내 등), ④ 행정(환자접수, 보험업무상담, 의료보험청구 보조, 전산처리보조, 입퇴원 환자관리 보조 등), ⑤ 시설, 장비관리(병원청소, 병실청소, 임상검사 및 방사선장비관리 등), ⑥ 의료서비스 지원(의무기록과, 차트정리, 의료소모품을 정리 및 포장, 수술환자 옮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참여하기 원하는 자원봉사는 의료서비스 지원, 응급실, 병실 및 외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보다는 시설, 단체 (요양소, 복지관, 꽃동네 등)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에 참여의도가 높았으며 참여하기 원하는 주요 봉사활동은 ① 우애활동 (말상대, 학습, 놀이 등), ② 외출보조 (휠체어, 안내, 동행 등), ③ 가사원조 (청소, 세탁, 장보기, 요리 등), ④ 신변보조 (식사, 배설, 입욕, 훈련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4.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은 ① ‘자아실현형’, ② ‘경험확대형’ ③ ‘사회사명형’ ④ ‘여가 및 전공활용형’ ⑤ ‘타인기대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Fancies는 자원봉사의 동기, 욕구를 ① 경험추구의 욕구 (need to experience) - 실제적인 이득 및 자아성장, ② 사회적 책임감 표현욕구 (need to express social responsibility) - 이타적 동기들, ③ 타인기대 부응욕구 (need to meeting other's expectation) - 의미 있는 주위 사람들의 압력, 영향, ④ 사회적인 인정욕구 (need to approval) - 사회적 존경, ⑤ 사회적 접촉욕구 (need to social contract) - 친교 및 사고경험, ⑥ 사회적 교환욕구 (need to achievement) - 미래의 보상에 대한 욕구, ⑦ 성취욕구 (need to achievement) - 개인적 성취로 구분하고 있다.¹⁴

또한 우리 나라에서 1985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기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21.4%,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하여 44.6%,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하여 14.2%,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때문에 8.9%, 주위 사람의 권유에 따라서 7.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참여유형을 ① 무관심형 ② 보상형 ③ 교육형 ④ 자선형 ⑤ 복지형으로 구분하였다.¹¹ 최근 우리 나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주요한 참여 동기는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 (35.8%),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34.0%),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 (33.5%)

순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을 시민의 책임과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생각할 경우 이타적인 사회적인 책임성만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요인분석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은 자아실현, 경험확대, 여가 및 전공활용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는 이타적,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형성, 경험 확장, 여가 및 전공활용의 측면에서 자원봉사를 인식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실시하였다. 의과대학 학생은 자발적인 또는 집단적인 자원봉사, 농촌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생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학점제로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필수과목보다는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자원봉사를 개설할 경우 수강할 의도 역시 높지는 않았다.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과목, 학점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의과대학의 과중한 수업부담과 학점에 대한 경쟁심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원봉사활동은 병원의 경우 지원부서, 응급실, 병실 및 외래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고 있었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는 노인, 아동, 장애아동을, 그리고 시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우애활동, 외출보조, 가사원조와 같은 비교적 육체적 노동이 적게 소요되고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은 자아실현, 사회봉사와 같이 자원봉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도 있지만 대인관계 및 경험공유, 대학의 사명, 여가 및 전공활용과 같은 사회봉사 이외의 요구도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할 경우 유의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봉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다양한 경험공유, 공동체감, 전문성 활용 등의 측면을 유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⁶ ①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과 협력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기발전과 성숙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며 ② 취미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 ③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④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⑤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계발하여 학습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⑥ 민주주의 사회에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와 같이 다양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층의 의지와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의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조직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학생회와 동아리의 조직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경시될 수 없다. 학생회와 동아리의 조직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면 장차 학생자치 차원에서 센터를 개설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미국대학 사회봉사센터의 대부분은 학생자치로 운영되고 있다.¹⁰

셋째, 자원봉사의 학점제 도입은 학생들이 반대가 있으며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의과대학이 과중한 수업과 학점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자원봉사의 제도화는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한 활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교수가 학

생들에게 사회봉사를 장려하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권위주의적 발상도 아니고 비교육적이지도 않다. 단순히 봉사의 효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삶에 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과 보람을 깨닫게 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⁵ 따라서 학교 당국의 의지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면 학점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복수: 국민건강과 산실 의학교육. 한국보건의료문제 진단과 처방 대한예방의학회 582, 1999
2. 강홍구: 병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대한병원 협회지 20:5-18, 1991
3. 김종양: 대학의 실용학풍과 사회봉사 - 대학과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대안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과 사회봉사』 세미나, 3-6, 1996
<http://dragon.skku.ac.kr/~bongsa/text/menu/>
4. 문창현, 이성낙, 임인경, 김형일, 이영돈, 전기홍: 한국 기초의학 과정 중 병원봉사 실습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2:57-66, 1990
5. 손봉호: 대학 사회봉사의 필요성과 방향. 제1회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심포지엄, 대학의 사회봉사, <http://dragon.skku.ac.kr/~bongsa/text/menu/>
6. 안수향: 한국 대학생 자원봉사의 동기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6, 1992
7. 유준: 의과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1978년 12회 의학교육세미나, 한국의학교육협회 151-155, 1978
8. 이강현, 김성경: 한국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한국사회복지학회관련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관련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htm
9. 이현청: 한국대학의 사회봉사사례. 『대학과 사회봉사』 학술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DSP 제96-4-56호, 1996

10. 주성수: 대학 사회봉사센터의 운영과 대학생 지역사회 봉사활동. 가톨릭대 사회복지연구소 학술대회 주제발표문. <http://dragon.skku.ac.kr/~bongsa/text/menu/>
11. 주영길: 불린티어(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6
12. 통계청: 1996년 한국의 사회지표. 1997
13. 한국여성개발원: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24, 1993
14. GR. Francies: *The Volunteer Needs profile*. Greenbay,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p. 10-12, 1982
15. JW Hurst: *The Bench & Me. Teaching and Learning Medicine*. Igaku-Shoin Medical Publisher, 1992. 서정돈 옮김: 허스트 박사의 의학교육론. 사계절출판사 182-183, 1994